윤병태 나주시장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14일 공공기관 2차 이전 국회 공동 결의대회 참여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속한 이행과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국회 공동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혁신도시 11곳 지자체장, 노동조합 대표,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여자들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혁신도시협의회 및 노동조합협의회도 공동건의문을 통해 "혁신도시 외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은 원칙 위반으로 분산 이전은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 원칙의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 기관 재배치가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정책"이라며 "혁신도시가 조성 취지에 맞게 지역발전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반드시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유일의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혁신도시 조성 성공사례"라며 "자족기능 확충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거점으로 도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완도군, '가스 안전 강화' 합동 점검 나선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숙박업소, 민박, 목욕장 등 점검

완도군은 가스 사고로부터 주민과 관광객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완도군 가스 안전 종합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완도군 가스 안전 종합관리계획'은 다중 이용 시설 점검과 가스 안전장치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해 가스 관련 위해 요소 개선과 안전 관리에 대한 군민 의식 확대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사업관리원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5월 말까지 관내 숙박업소 125개소, 민박 276개소, 목욕장 12개소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반은 가스 설비 적정 설치, 가스 누출, 배기 통 이탈, 일산화탄소 누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결함 발견 시 개선 명령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LPG 배관망 사업과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현재 LPG 배관망은 완도읍 19개 마을 4,100여 세대와 6개 섬마을 400세대에 설치되어 연료비 절감은 물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28년까지 고금, 군외, 약산, 신지면으로 확대된다.

고무호스 사용 가구의 금속 배관 교체, 가스 자동 차단 장치(타이머콕)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도 현재까지 1만 세대에 설치됐으며, 모든 주택, 가스 사용시설 등에 설치되도록 매년 지원량을 확대한다.

기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가스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안전 의식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스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시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완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완도/장선우 기자

영암군, 올 가을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 개최한다

국화축제 때 구림마을서 개최키로… 문화로 정체성 확립 시급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3일 군청에서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 조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이날 회의는, 신은주 (유)두다 대표를 조직위 부위원장 선출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위촉의 자리이기도 했다.

먼저, 김준봉 조직위원장 등은 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비엔날레를 가을 국화축제 시기에 맞춰 군서면 구림마을 등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비엔날레를 연속 개최하는 이유로, 지난해 비엔날레를 발판 삼아 한옥 관련 '문화'를 재조명하는 등 행사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그 연장선에서 올해 비엔날레의 방향성도 한옥과 관련된 문화를 어떻게 보여주고, 방문객들과 공감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봉수 삼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는 "한옥을 짓기만 하는 시기는 지났고,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한옥 생활·가구·차 등 문화 요소, 풍경·정취·체험 등으로 비엔날레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별터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는 "한옥의 구조도 많이 진화하고 있다. 그 성장과정을 비엔날레에 구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올해 행사의 기본 방향을 정한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 조직위는, 다음달 2차 회의를 열어 그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담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개선 캠페인 펼쳐

담양군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청소년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수북초등학교 인근에서 합동 점검 및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수북초등학교와 수북파출소, 담양군, 담양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학교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의무를 안내하고, 술·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표시가 없는 업소에는 스티커를 배부하고 현장 계도도 함께 진행했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생현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회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담양군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옥 기자

강진군,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강화

내가 사는 강진, 깨끗한 마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강진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5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야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강진군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왔으나 일부 지역에서 야간 시간대를 이용한 무단투기가 끊이지 않아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투기 단속요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불법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평일 및 주말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함은 물론 즉시 수거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불법투기 감시 CCTV 4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군민 제보를 적극 수렴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도 유도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환경은 군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무안군, 2025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건강검진비 최대 30만원 지원해 안정적 정착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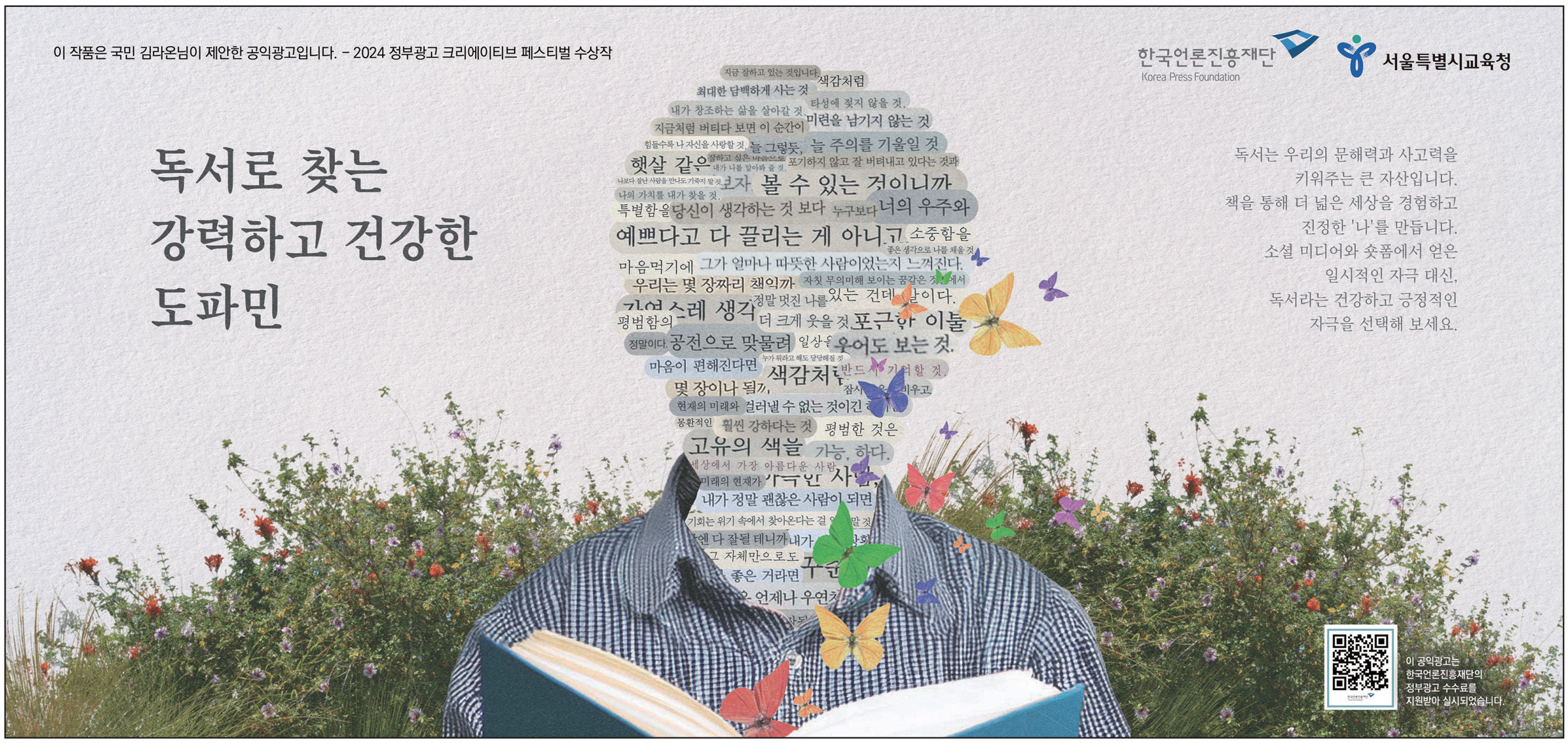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열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무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2017년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2018년부터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심의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통해 한 북한이탈주민이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에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연말에는 남은 예산을 활용해 쌀과 김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생활 안정도 도왔다.

올해 협의회에서는 짝수연도 출생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상자가 이미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지원도 가능하도록 협의했다.

이광진 자치행정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무안군민으로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심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